

만나고 싶었습니다

개원 5주년 불교음악연구소장 법현 스님

“범패, 세계로 대중속으로”

“불교 음악과 무용의 전통을 체계화 하여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한편, 해외에까지 우리 불교음악과 무용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겁니다.”

깨달음의 음악, 수행의 음악으로 불리는 범패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97년 불교음악연구소를 개설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온 법현 스님(통국대 국악과 교수·영산재 이수자, 스님은 올해 불교음악연구소 개원 5주년을 맞아 어느 해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낼 예정이다.)

스님은 활발한 해외 공연을 펼쳤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 해외공연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5일 대만에서 불교음악교류대회를 갖고 돌아온 스님은 대만 불교음악계와 지속적인 교류를 갖기로 하고, 이번 공연에 대한 담례 형식으로 오는 10월 경 우리나라에서 두 나라의 불교음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불교음악무대를 꾸민다.

이에 앞서 오는 4월 말경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한 ‘일본불교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 일본국립극장에서 영산재 공연

일본·대만·프랑스 등을 해외 공연 줄이어

홈페이지 동영상 제공 저서 2권 곧 출간

을 가진 바 있는 스님은 이번 한 일불교음악회에서 영산재를 비롯해 기타 불교 의식의 정수만을 모아 재구성해 새로운 무대공연형식으로 선보인다. 또한 오는 5월 27일부터 열흘간 이태리 비엔날레에도 초청받아 불교음악과 무용을 개인 콘서트 형태로 선보이고, 세미나도 가질 예정이다.

스님은 7월말에는 프랑스로 떠난다. 프랑스 국영 라디오 방송국 초청으로 공연을 갖고, 공연 상황을 녹음해 프랑스 판 범패 음반을 내기 위해서다. 유네스코가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라져가는 세계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실시되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3년 전부터 준비해오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범패의 훗소리, 짓소리, 안재비소리 등을 영산재 이수자스님들이 함께 녹음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스님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 음악과 무용을 일반인들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문화교양서 <불교무용>과 <불교음악 감상>을 조만간 발간할 계획이다. 현재 스님은 자신이 운영해 온 인터넷 범패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범패에 대한 온갖 자료들이 담겨져 있는 범패 사이트는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는 물론 중국어와 일어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교 의식의 동영상도 다룬 받을 수 있도록 각 1시간 분량으로 편집한 동영상 43편을 제공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유할 수 있어야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법현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과 5월 단오, 그리고 사찰 음악회 등 힘이 닿는 한 어디라도 마다않고 우리 전통 불교 음악과 무용을 선보이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화담당= 이은지 기자 elee@buddhapa.com



◀법현 스님은 영산재 이수자로, 불교음악연구소장으로, 통국대 국악과 교수로 일궈온 활동을 펼치며 우리 불교예술의 전통을 잇고 있다.



김홍기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나는 수험을 두 개 가지고 다닌다. 하나는 일반적인 수험이고 다른 하나는 포켓용 노트인데, 그것은 그 날 그 날 생각한 바를 기록하는 일종의 정신적 일기장이다. 일상생활 중에 머리에 떠오르는 내용뿐 아니라 책이나 신문 등을 다가가 눈에 띄는 글이나, 강연에서 들은 기억에 남는 말 등을 잊지 않도록 메모해두는 것이다. 내 영혼을 뒤흔들 글 언술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그럴 경우 놓치지 않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트만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 이 노트를 펴보면, 글귀 하나 하나가 불씨가 되어 생각의 종개구름을 피워 올리기도 한다. 휘발성이 강한 언어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인류의 양식이 되는 것은 신비한 일이다. 통펠로우의 시는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는 하늘을 향하여 활을 쏘았다
그 화살은 너무도 빨리 날아서
내 눈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정명 땅위로 돌아왔으리만은

화살이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통펠로우 '화살의 노래'

노트 펴보니
心眼 뜨게 한
생명의 말씀들

나는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불렀다
저 빠르게 흘러
지는 노래를
그 누가 따라가
잡을 수 있으랴
그 노래도 땅위로
돌아왔건만은

그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오래고 오랜 후의 일이다
상상한 상수리나무 동굴에서
아직 깨이지 않은 그 화살을
아, 나는 찾아낸 것이다

오래고 오랜 후의 일이다
친구들의 가슴에서
그때 내가 부른 노래를
아, 나는 다시 찾아낸 것이다

우리의 산란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어 심안(心眼)을 뜨게 해주는 맑은 산 인격에서 솟아 나온 한마디 생명의 말씀이다. 인격이 실린 맑은 얼마나 무거운가? 인간이 이 땅에 온 것은 한마디 '계소리'를 들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기 위해서라면 과장일까? 진실한 인간은 사후 그가 남긴 '계소리'로 기억된다. 노트를 펴보니 최근에 내가 적은 글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얼마 전 일반인인 해암스님이 생전에 마지막 마도로 남긴 임종제이다. 성철스님에 대해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법어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처럼, 앞으로 해암스님도 '공부하다 죽어라 죽을 만큼 열심히 공부해 봐라'라는 가르침과 더불어 친필로 포박포박 쓴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라는 임종제가 떠오를 것 같다. 공자는 아침에 '한 말씀(德)'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지만, 내가 평생을 쓰고 쓰더라도 다 못 쓸 한 마디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도 그 '한마디'의 끝없는 변주곡들을 노트에 기록한다. ■문학평론가

“롬비니 어린이 돕자”

10여국서 81조각 만다라 제작

3월 중순 日 동경서 전시
한국은 정혜민 교수 완성

81조각의 만다라가 모여 하나의 거대한 초대형 만다라로 거듭나는 전시회가 3월 중순 일본 동경에서 열린다.

만다라 21세기 프로젝트가 준비한 이 전시회는 일본 문화여자대학 피복재료학 교수인 나로세 노부코 씨가 주축이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롬비니의 어린이들을 돕자는 원력으로 지난 2000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만다라는 가운데 부처님을 중심으로 사방세계 모든 불보살의 모습을 형상화한 전체 50m×70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이다. 나로세 교수는 만다라를 전체 81조각으로 나누어 한국, 일본, 프랑스, 페루, 중국, 인도 미얀다 등 세계 10여개 동맹국에 보냈다. 각 조각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일본 섬유회사 동서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로세 교수의 제자인 정혜민(전 동양대 교수)가 81조각 가운데 한조각을 맡아 지난해 8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최근 완성했다. 전체 만다라의 면 아랫부분 가장자리로 천년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 한 조각의 크기도 5m×7m에 이르는 대형이다.



◀만다라 81조각 가운데 정혜민 씨가 제작한 부분도, 이 한조각의 크기만도 5m×7m에 달한다.

정 씨는 “만다라 81조각을 모아 지퍼로 연결해 일본에 이어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세계 순회 전시를 통해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관심있는 한국불자들의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0311712-7516

염불독송 비디오

영인 스님 '천수경' 등 3편

지난해 <법화경> 27종 원승 염불을 선보였던 영인스님이 이번에는 독특한 염불독송 비디오(대부모은중경) <천수경·반야심경> <관세음보살보문품·화엄경약장제 법성계> 3편을 내놓았다.

이 비디오염불은 영인스님이 찍어놓았던 국내 유명 사찰의 풍경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중간 중간 스님의 독송 모습을 편집하는 형식으로 꾸며졌다. 특히 비디오 염불이 시작될 때마다 경전의 의미와 공덕에 대한 성우의 나레이션도 곁들여 경전에 대한 이해도 도모했다. 02743-5033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전문문화, 민속자료, 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원형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화하는 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창작소재를 제공하고 고품질 문화 콘텐츠 창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5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추진될 이 사업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그동안 축적해온 각종 자료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춘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한다.



한마음선원 회보 창간

한마음선원의 격월간 포교지 '한마음' 창간호가 발간됐다.

이번호에는 지난해 11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심장병 어린이 돕기 한마음 합창제' 소식과 수행의 길잡이 '생활속의 관법수행', 인터넷과 불교, '신행담', '선원소식' 등을 담았다.

민족사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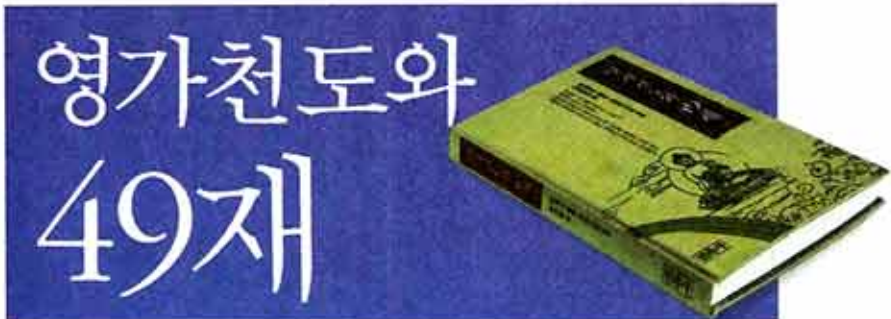


석지현·일지·윤창화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 6,800원

신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불교에 대한 상식과 예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절에 가서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이 책은 우리 불교신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만 모아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썼습니다
예컨대 “어신신도를 왜 보살님이라고 부릅니까?” “주지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까?” 등등 150가지입니다



박계사 율주 중진 큰스님 강수/박연진 옮김 | 4×6판 양장 | 216쪽 | 값 6,000원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49재를 지내면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책은 매우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하여
천도재와 49재를 지내는 까닭을 아십니까?